



고흥군, 청소년 자녀와의 소통 위한 부모교육 큰 호응

성교육 전문가 '손경이' 초청 강연



고흥군이 '청소년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5일 고흥군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진행된 교육은 관계교육연구소 소장 손경이 강사를 초청해 '솔직답백! 요즘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자녀 성(性)교육법'이라는 주제로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소통법을 강의해 참여한 학부모님들에게 큰 공감대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군은 최근 미투(#Me Too), 위드 유(#With You) 운동으로 성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자녀가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부터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중요하므로 이번 교육을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손경이 강사는 "성(性)은 관계로 풀어야 한다며,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관계개선

을 위해서는 자녀의 고민 해결해줄 기회를 통해 신뢰를 쌓고, 서로 원하는 것 들어주기를 통해 마음 헤아리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남녀를 등등하게 주제로서 인식하고, 성 자기결정권과 상호존중의 중요성을 다양한 경험담과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 참여한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미쳤을 영향을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자녀와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법을 배워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다. 또한 "부모로서 성에 대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솔직 대답하게 설명해주어 이해하기 쉬웠고, 앞으로는 스스로 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겠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보성군, 찾아가는 '행복한 한글교실' 큰 호응

어르신들 배움의 기쁨으로 활력 넘쳐

보성군에서는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복한 한글교실'이 큰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다.

'행복한 한글교실'은 지난 4월 선정된 국가생생교육진흥원 주관 '성인문화교육 지원' 공모 사업비 1천9백만 원으로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 문자해독능력 향상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을어면 문양리를

시작으로 조성면 대흘, 북내면 반석·장천, 보성읍 노산, 미력면 장동 등 6개 마을에서 차례로 한글교실을 개강했으며, 80여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매주 2회 2시간씩, 총 80시간에 걸쳐 실시된다.

특히, 지역출신 퇴직 교장과 교사 등 여섯분이 강사로 나서 실생활에 필요한 한글, 숫자 연산, 휴대폰 활용방법 등을 가르치며 훈훈한 감동을 나누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수강생 김모 어르신은 "선생님이 미يل로 직접 찾아와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니 너무 고맙다"며, "한글 수업은 글씨를 배우는 것에 그지지 않고 마음까지 행복해져 항상 웃음꽃이 피고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행복한 한글교실로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며 한글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교육 민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신안군, PLS 제도 전면 도입 따른 교육·홍보 박차



신안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 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가 2019년부터 농작물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약안전사용기준 교육 및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해서는 「농약

잔류량 0.01ppm 이하」의 농약잔류 기준을 적용한다.

이 제도는 현재 경과 종실큰(참깨, 들깨, 땅콩 등)과 열대과일류(파선프루트, 키위 등)에 이미 적용 시행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되며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연기(금지), 회수 및 판매 중지, 수입통관금지 등 적용되어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살포하려는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구입 작목별 등록된 농약 사용,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회색배수, 살포횟수, 마지막 살포일), 농약 사용전 다시 한번 체크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

시 준수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부적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이번 6월 25일부터 시작한 여름철 현장영농기술 교육시 PLS 제도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하고 작물생육관리, 병해충 방제, 논 타작물 재배 기술지도 등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의 현장에 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종류도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친환경적 농산물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적합 농산물 제로생산을 목표로 PLS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함평군, 마을단위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성료

9개 읍·면 90개소 농업인 1428명 대상 실시



함평군이 지난달 27일부터 관내 9개 읍·면 90개소에서 농업인 1,4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6일 밝혔다.

마을단위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작목별 재배기술과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물질목록제도(PLS),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작물재해보험 등

주요 시책을 직무별 전문지도사 26명이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대추연구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1시군 1특화작목으로 선정된 대추의 고품질화를 위한 재배기술 교육과 대추의 여름철 관리요령, 병해충 방제 기술 등 교육도 진행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주력했다.

교育에 이어서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애로·불편사항을 일문일답형식으로 주고받으며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행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토양점검, 농산물인증 분석, 유용미생물공급, 농기계임대 등 다양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이용해 농업 기술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구례군, 산수유 가공 표준화 기술개선 교육

구례군은 지난 6일 구례산수유영농조합법인 주최로 산수유생산자단체 회원 30명을 대상으로 산수유 가공 표준화 기술개선 교육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농가형 산수유 견피 가공기술을 표준화하기 위해 그동안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아생회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급하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산수유의 품질기준, 산수유 가공 조건, 위생적 생산을 위한 작은 실천방법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을 담당한 정지숙 박사는 "산수유의 위생적 품질관리와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산수

유 견피 원료 표준화를 위한 가공 매뉴얼 개발과 GMP(우수제조시설) 수준의 험약구격품 생산을 위한 공동제조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공장 규모의 시스템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농가형 산수유 견피 가공에 있어 오늘의 교육으로 작은 실천과 의지가 모여 더욱 품질 좋은 산수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소에서 연구한 내용을 보급하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산수유의 품질기준, 산수유 가공 조건, 위생적 생산을 위한 작은 실천방법 등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을 담당한 정지숙 박사는 "산수유의 위생적 품질관리와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산수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7(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무상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건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기(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약사용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전경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청탁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민사권리방안 안내